

살며 생각하며

Thinking with living

조인숙 /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by Cho In-Souk

*When one door closes, another opens... into another room, another space, other happenings.
There are many doors to open and close in our lives.
- loving and leaving the good life by Helen Nearing*

최근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본다.

건축분야의 모(某)학회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행사를 통해 느낀 일이다. 규모가 작은 학회이다 보니 행사준비를 회원들이 서로 나누어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필자에게 배정되었던 일은 기념연회준비였다. 준비와 행사, 그리고 뒷정리를 하고 나서 새삼스럽게 사회와 도시, 건축 모든 것에 대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첫째는 기금조성과 사회현상에 관하여, 둘째는 고정관념에 대하여, 셋째는 계획성과 즉흥성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건축분야의 여학생들 및 그들의 앞날에 관하여 생각해봤다.

첫째 기금조성과 사회현상에 관하여: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정작 학술연구를 하는 집단은 명분이 없어서 도움을 못 받는 것이 현실이다. 회원들이 내는 회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회원들의 대부분이 재직교수이니 학회살림이 뻘해서 행사비용 및 기념학술지 집필과 책자발간비용 마련을 위해 회원 몇몇이 나누어서 모금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 중에 몇 가지 주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는 도와주실 만한 선배들께 손을 벌리려니 명분이 전혀 없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려니 대다수의 학회회원들이 건축사사무소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학자들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학회의 연구물이 설계자나 시공자들에게 가시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었다. 소위말해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이 안 되니 기금을 내고 싶어도 못내는 것이었다.

우선 동문집필자도 없고 회장단도 아니고 하니 동문에게는 손 벌리기가 어려웠었다. 학연도 지연도 아닌 동료 A사무소에 찾아갔었는데 뭐 좀 도와줄 듯 하더니 손익 계산을 해보고는 그 회사가 학회의 도움을 받을 일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소식이 없었다. 그리고 수락했던 분들도 예상외로 소액을 보내셔서 건축분야의 불황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다.

둘째, 여성에 대한 그리고 여성 스스로의 고정관념과 배려에 대하여:

몇 안 되는 상임이사 중 유일한 여성이라고 연회준비에 뽑혔다. 아저씨들의 고정관념 속에 '여성=파티'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일이니까 각 학교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여학생까지 동원하여 철저한 준비를 했고 여학생들의 눈부신 활약과 남학생들의 보조로 당일 행사를 무사히 마쳤다. 어렵게 모은 돈이라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연회는 출장파티를 포기하고 사무실에 있던 기존집기를 활용하여 조출했지만 궁색하지 않게 끝냈다.

한편 학술회의 집필진 및 회의 사회자를 정할 때에는 여성 연구자나 학자는 아저씨들의 안중에도 없었다. 집필진을 정한 것은 내 담당이 아니라 보고만 있었지만 이사회에서 학술행사진행을 정할 때 겨우 한사람을 천거하여 사회자로 넣었는데 그 여교수가 여성자격으로 맡겨진 사실에 대해 그리고 그 추천을 여성이 했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났었노라고 행사 후 농담반 진담반의 얘기를 해왔다. 대학의 건축과에 많은 여학생들이 다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림이 너무 드물기에 대등한 분야에서 이렇게 활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해 주려고 사회자로 천거했던 것인데

깊은 뜻을 몰라준 것이다.

사실 우리 건축분야 풍토는 상대에 대한 '배려' 라는 단어가 없다. 학교 안배는 하면서 성별 안배는 안 하는 것이다. 물론 대다수가 전통적으로 남성인 분야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한다. 여성 하면 주거건축을 전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연회 담당을 맡기는 것은 한편으론 전통적인 고정관념이고 다른 한편으론 영광스런 일이지만, 같은 연구자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어깨를 겨룰 수 있도록 각분야에 집어넣으려는 의지와 아량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는 계획성과 즉흥적인 추가지출에 대하여:

연회준비에서 아쉬웠던 점은 예산이하로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 만반의 준비를 했었는데 준비한 것이 부족할 것 같았는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예정에 없이 케이크를 사다가 일회용 접시에 담아 사이사이 끼워 놓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인원수가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전체 계획은 흐트러졌고 맛과 색과 비례와 조화는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다.

이번 연회준비에서 원칙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일회용품모품을 안 쓰고, 한가지 주된 음식과 그 것에 맞는 마실 것 한 가지, 그리고 그것을 받쳐주는 꽃 장식이었다. 먹을 것과 마실것과의 조화와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이 분명한 상차림이 목표였다. 그러나 예산에도 계획에도 없던 것이 어쩔 수 없이 마구 들어가게 된 것이다.

주택이 모자란다고 갑자기 주택을 더 짓고, 급하다보니 아무렇게나 지은, 생각 없는 건축물들로 도시가 망가졌듯이 상차림의 그림이 본의 아니게 망쳐진 것이다. 한 번 이질적인 것이 들어가자 회복이 안 되는 것이었다.

건축에서는 공사비와 그 품질이 가장 중요한 품목이다. 설계와 내역을 만들어 예산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고객이 큰 낭패를 보게된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던 그림을 몇 번 그려보고 가격을 뽑아 본 다음에 여기저기 견적을 받아 하나가 정해지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건축사라는 직업의 속성인데 설계와 견적에 없는 품목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좋은 것이 많은 줄 알아도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라면 당연히 절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현실이 허락하질 않았다. 떡이 주식인데 그 옆에다 케이크를 놓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면에 네모난 창이 주된 요소인데 예를 들자면 설계 경험 없는 교수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요청으로 벽면이 비었다고 동그란 창 몇 개 더 뚫는 것과 같았다. 즉흥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초과하면서 본의 아니게 전체계획을 흐트러지게 한 것이다. 신뢰가 안되어서 그랬을 것이다

제대로 된 도시는 시민의 수준과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기본이 된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이 비어 있다고 조그만 건물로 채우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상차림같이 사소한 일에서도 전체를 볼 수 있어야 조화로운 도시와 건축을 학생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건축분야의 여학생들에 관하여:

요즘 대학원에 건축전공자 여학생들이 많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답사도 열심히 다니고 아주 적극적이다. 전문가로서의 자질향상에는 주력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여성이 해왔던 일은 사소한 일일수록 뒷전이다. 물론 사회는 변했고 여성의 역할도 달라졌다. 입시 공부하느라 인성교육은 받은 적이 없으므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해야하

는지를 배운 적이 없다. 게다가 대학원쯤 다니면 전문분야의 주역으로 살아갈 길을 추구하느라 사회의 일원으로써, 여성으로써 사회봉사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것은 나중 일이다.

수준 있는 사교라든가 친교라든가 하는 것을 겪어 볼 기회가 없어서 몰라서 그랬을 뿐이지 그래도 이번 행사에 동원되었던 건축과 석사 및 박사 학생들은 제법 우수했던 것 같다. 필자는 여학교시절 6년간 간부훈련 및 지도자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요즈음은 입시 때문에 부모들의 반발이 심해서 그것도 어렵다고 하지만 그 학교는 60년대 당시 중 고등 학생들을 사회의 봉사자로서, 지도자로서 지낼 수 있도록 자질훈련을 시켰었던 것이다.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것이 대학졸업 후 지금까지 25년간의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공부를 많이 한 대학원 졸업한 여성을 만일 내 사무실에 채용하려면 아마 거절할 것이다. 물론 사무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사회선배로서의 도리로 한 두 사람쯤 함께 작업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들이 틀림없이 일을 잘 하리라 믿으나 지도교수와 제자의 관계가 한번 성립된 학위과정 출신자들은 지도교수 이외의 사람들은 다 하찮게 여기고, 설계분야에서 생명이 짧고 비람이 좀 들어가 있는 편이라 함께 지내면서 부대끼기 싫어서이다.

요즈음 느끼는 것인데 어디에 첫발을 딛는가가 끝까지 가는 행보를 결정하는 것 같다. 대학원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은 결국 학계로 진출을 하게되고 설계분야에서 시작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공부를 보충해도 대체로 설계분야를 지키게 되는 것 같다.

얼마 전 독일 대학의 해당학과의 소개 홈페이지를 보다가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 학과를 졸업한 후 사회의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가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자기가 앞으로 생업으로 할 학문분야를 대학의 전공으로 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학이란 학문의 연구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진학하는 곳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의 대학은 학문과는 거리가 멀어도 무조건 진학하며 점수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졸업을 한다. 건축분야만 해도 설계, 구조, 시공, 그리고 환경으로 나뉘질 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괄이 안 되어있다. 사실 전국관공서 및 각종기업체나 단체에까지 건축과 출신이 필요하나 그런 줄을 모르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전문화랑 등에서도 그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건축전공 학생들은 미래의 다다오 안도를 꿈꾸고 렘 쿨하 아스를 꿈꾸면서 현실과는 유리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고교 및 전문대 나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일도 대학(원) 졸업자들이 하다보니 그들의 업무는 생명도 짧고 게다가 어설픈 지식이 장애물이 되어 사회에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전체가 이러니 여학생 졸업자들은 취업에 있어서는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건축과 졸업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각 분야를 찾아내어 젊은 미래의 건축가들에게 희망을 좀 주어야 할 것 같다. ■